

##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환경자극 및 유아의 행동문제 간의 구조적 관계\*

Structural Mode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of Family, Home Environment Stimulation,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and Interactive Peer Play of Preschool Children

김세리<sup>1</sup> 이강이<sup>2</sup>

Seri Kim<sup>1</sup> Kangyi Lee<sup>2</sup>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of family, home environment stimulation,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and interactive peer play of preschool children. Surveys of 2,150 Korean mothers with their preschool children (Mean age= 51.9 months) from th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by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Each variable'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howed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low .85, which made a satisfactory level of discriminant validity. The model fit to the data well, with an agreeable level of index.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SE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ed children's interactive peer play. Second, SES significantly affected home environment stimulation and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ES and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are significantly mediated by home environment stimulation.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SES and children's interactive peer play are significantly mediated by home environment stimulation and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These results help better understand the paths among the home characteristics and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on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Interpretation and implication of the results have been discussed.

\* 본 연구는 2015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됨.

#### 1 제1저자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 2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e-mail : kangvil@snu.ac.kr)

**key words** socio-economic status of family, home environment stimulation,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interactive peer play

## I. 서론

최근 아동의 보육 시작 연령이 점차 낮아지면서 영유아기 시기의 또래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른 시기부터 보육 기관에서 생활하는 유아는 자연스럽게 또래나 교사와 함께 있

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유아에게 또래는 가족 이외의 또 다른 의미 있는 관계로 자리하게 된다. 유아는 또래와 활동하며 관계 변화의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를 동시에 경험하며 타인, 자신, 사회에 대한 학습과 함께 정서적, 인지적 자원을 얻기도 한다(Hartup, Cillessen, van IJzendoorn, & van Lieshout, 1992). 이처럼 유아기 또래관계는 발달의 전영역과 관련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시기의 사회적 유능성을 예측한다(Johnson, Ironsmith, Snow, & Poteat, 2000)는 점에서 그 연구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유아기에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루는 대부분의 시간은 놀이를 통해 이루어진다. 놀이를 통해 유아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필요한 기술과 사회성을 발달시키게 되고 나아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도 갖추게 된다(Howes, Unger, & Seidner, 1989). 구체적으로, 놀이감을 서로 공유하고자 하는 상황에 놓여있을 때 유아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려는 과정을 통해 자기중심적인 사고경향에서 벗어나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사회적 이해력을 발달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Garvey, 1984; Katz, Kramer, & Gottman, 1992). 이와 같이 놀이는 유아의 사고를 이끄는 활동일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생각, 사회적 기술 증진 등의 전인적 발달을 촉진하는 발달의 집약적 행위이자 발달적 변화를 위한 경험들을 축적해 나가는 하나의 기제가 된다. 놀이 과정 중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은 유아의 사회성을 예측하게 하는 중요한 장면이다. 놀이 상황에서 주고받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타인의 생각을 고려하게 만들며 이를 통해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사회적 이해력을 발달시키게 한다(최혜영, 신혜영, 2008). 따라서 유아의 놀이 상황 내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사회성 발달을 도모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은 가족관련 특성과 매우 관련이 깊다. 그 가운데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가족의 특성을 규정하는 주요한 변인중 하나로 논의되었다(Bradley & Corwyn, 2002).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짓는 주요 지표인 부모의 교육수준과 소득은 아동의 건강(Chen, Matthews, & Boyce, 2002), 인지(Brooks-Gunn, Duncan, & Maritato, 1997), 사회 정서 발달(Bradley & Corwyn, 2002) 전반과 매우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개인이나 가족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를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하며, 가정의 경제, 인적자본을 가늠하게 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가족구성원의 교육수준, 소득은 가족자원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주는 주요 지표로서 논의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소득과 교육수준을 사회경제적 지위의 측정 변인으로 보고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심리사회적 요인과 다르게 노력여하에 따라 변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아의 발달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결과들은 유아의 또래관계 내 부적응이나 부정적 정서표현, 상호작용 등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며(Dishion, 1990; McLoyd, 1998; Pettit, Clawson, Dodge, & Bates, 1996), 학령기에 또래관계 내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도 매우 상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Ogbu, 1992).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

기보다는 매개변인에 의해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Gershoff, Aber, Raver 그리고 Lennon(2007)에 따르면 가정의 수입이 아동의 사회 정서 발달에 직접적으로 관련 되기 보다는 부모 스트레스나 긍정적 양육과 같은 부모의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그 관계를 조절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족의 수입이나 교육수준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교육적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장영은, 2015). 이처럼 최근 연구들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의 발달에 직접적 결정요인이기 보다는 부모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들을 통한 간접적 발달 경로를 탐색하는 것이 최근 추세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치는 영향을 관련변인과 함께 그 경로를 탐색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관련성과 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관계에서 크게 두 가지 변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다양한 변인들이 개입될 수 있으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정 내 전반적 환경과 유아 개인 각각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과 유아의 개별 지원에 함의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가정 내 전반적 환경을 의미하는 가정환경자극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매개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가정환경자극은 유아의 정서나 사회성 발달과 관련성이 있으며(김혜경, 조성연, 2002; Caldwell & Bradley, 1984) 풍부하고 발달에 적합한 가정환경은 유아의 사회적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노성향, 2015). 또한 언어발달(김수진, 김수영, 2009; Baker & Iruka, 2013), 인지발달(정미라, 권정윤, 박수경, 2011)과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왔다. 이처럼 가정환경자극은 유아에게 물리적, 언어적,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정 내 자극들을 총칭하는 것(Collins, Maccoby, Steinberg, Hetherington, & Bornstein, 2000)으로 볼 수 있으며 Caldwell과 Bradley(2003)는 가정환경자극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으로 학습자료, 언어자극, 물리적 환경, 반응성, 학습자극, 모방학습, 다양성, 수용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즉, 가정환경자극이란 가정의 환경적 맥락의 총체를 잘 나타내주는 개념이며 가정 내에서 자녀에게 제공되는 학습, 언어, 인지, 정서, 물리적 차원의 자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정환경자극은 사회경제적 지위와도 관련이 깊다. 장영애(1997)는 어머니의 교육 수준에 따라 자녀의 발달을 위한 자극, 환경의 물리적 측면 등을 고려하는 정도가 달라지며, 월수입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제공하는 자극의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경험의 다양성도 더 높게 고려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지연과 광금주(2008)의 연구에서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정환경의 질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정환경 내에서 자녀에게 제공하는 자극과 매우 관련이 높음을 의미한다. 가정환경자극을 풍부하게 받은 유아의 경우 더 높은 성취를 보일뿐만 아니라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며 이는 적응(Baker & Iruka, 2013)과도 매우 관련이 높기 때문에 이른 시기부터 또래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유아가 기관에서 또래와 놀이하며 상호작용하는 것 또한 가정환경자극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가정환경이 생후 사회적 발달(김혜경, 조성연, 2002; Easterbrooks & Goldberg, 1984)에 결정적인 요인임을 감안하

있을 때 가정환경자극이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보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간 가정환경자극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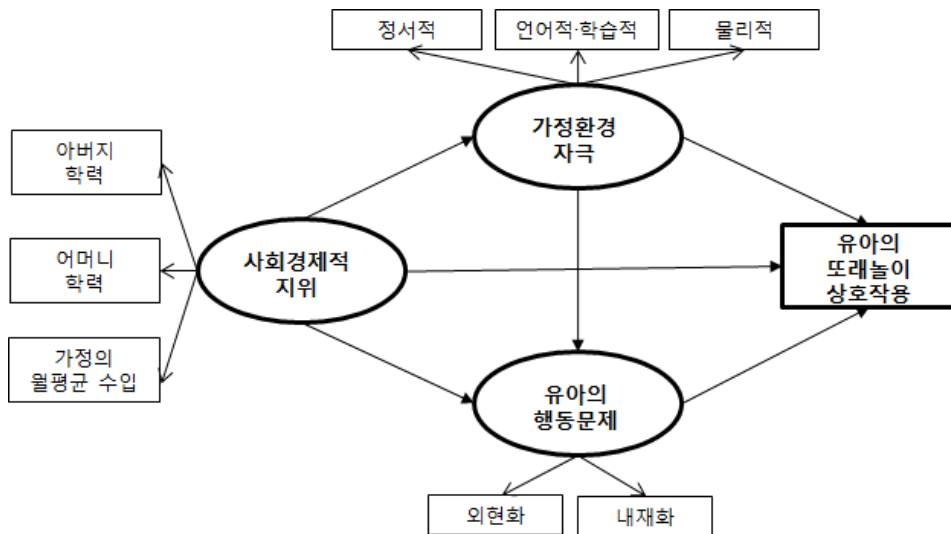
더불어 사회경제적 지위는 유아의 행동문제를 통해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유아의 내재화 문제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우울, 위축된 심리 상태는 유아가 또래와 놀이를 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격적 행동, 주의집중 등의 외현화 문제 또한 유아의 놀이 행동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Nelson, Rubin, & Fox, 2005). 이러한 유아의 행동문제는 이후 학령기의 학업, 교우관계를 예측하고 설명하는 주요한 지표(Boivin & Hymel, 1997)로 논의되면서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아의 심리적 문제는 또래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또래관계에서도 갈등이나 어려움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Coplan, Findlay, & Nelson, 2004). 또한 유아가 신체적 공격성을 많이 나타내는 경우 또래로부터 거부되거나 놀이 상대에서 비선호 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Nelson, Robinson, Hart, Albano, & Marshall, 2009) 유아의 행동문제는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탐색하는데 주요 원인으로 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권유경, 정소희, 2010)에서는 이러한 유아의 행동문제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radley & Corwyn, 2002) 저소득층의 가정의 경우 아동이 우울감이 높거나 행복감을 낮게 지각하는 등의 내재화 문제를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한다(Hill, Bush, & Roosa, 2003).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아의 공격성과도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의력 결핍 행동을 보이는 아동이 저소득층 가정에서 많이 나타난다(Larsson, Sariaslan, Långström, D'Onofrio, & Lichtenstein, 2014; McCoy, Frick, Loney, & Ellis, 1999)는 점을 통해 외현화 문제 또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도 관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와 같은 유아의 행동문제가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지금까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에 가정환경자극과 유아의 행동문제가 매개 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나 가정환경자극이 유아의 발달과 관련이 깊다는 점을 통해서 볼 때 가정환경자극이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과 함께 유아의 행동문제와의 관계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Jeffers와 Lore(1979)에 따르면 가정환경이 유아의 긍정성이나 공격적 성향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뜻하고 온정적인 가정환경의 유아가 품행장애의 빈도가 낮으며(Tolan, Dodge, & Rutter, 2013) 풍부한 자극을 제공받은 유아가 안정성의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이주리, 유안진, 1991)는 점을 통해서 볼 때 가정환경자극이 유아의 행동문제를 통해서도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가정환경자극이 유아를 둘러싼 총체적 자극을 의미하고 이를 구성하는 요소인 물리적, 학습적 자원, 정서적 지원의 총체가 실제로 유아의 내·외적 문제와 나아가 또래 내 상호작용 특성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지를 살펴보는 것은 유아에게 제공되는 가정환경 내 자원의 역할을 탐색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예측변수로 하여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

용과의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정환경자극과 행동문제를 매개로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사회경제적 지위가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가정환경자극이 유아의 행동문제를 통해 또래놀이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조적 관계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부모의 학력 및 소득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구성하는 측정요인으로 보고 이것이 유아에게 제공되는 언어 및 학습적 자극, 정서적 자극, 물리적 자극으로 구성된 가정환경자극과 유아 개인의 행동문제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관계가 유아가 경험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유아의 행동 간 관련성 혹은 또래 놀이 행동이나 상호작용과의 관련성을 단편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의 구조적 경로를 탐색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었다. 또한 국내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을 주 연구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초기 발달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또래와의 상호작용 사이의 관련 변인들을 고려하여 그 영향 경로를 확인함으로써 변인 간의 관계를 더욱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유아의 사회성 발달 양상 중 하나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발달 기제를 밝히고, 나아가 유아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정환경과 유아 개인의 심리, 행동적 지원을 위한 정책적 마련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환경자극, 유아의 행동문제 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그림 1) 연구 모형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2012년도의 데이터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012년의 5차년도에는 2,150명이 참여하여 1차 년도의 84.4%의 응답률을 보였다. 아동의 평균 월령은 51.89개월이며 모의 평균 연령은 34.79 세, 부의 평균 연령은 37.26세이다. 연구대상자의 자녀 성별은 남아가 40.5%, 여아가 38.7%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23.3%, 대졸이 51.3%, 대학원졸 이상이 4.1%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21.2%, 대졸이 49.0%, 대학원졸 이상이 78.4%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43%가 취업이나 학업 중이었고 57%는 미취업 상태였다. 월평균 가구 근로 소득은 443.78만원 이었다.

### 2. 연구도구

#### 1)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Fantuzzo 등(1995)과 최혜영과 신혜영(2008)이 사 용한 또래 놀이행동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도구이다. 또래 놀이행동 척도는 총 30문항 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부터 ‘항상 그렇다(4점)’의 Likert척도로 교사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하위 영역은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 3가지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놀이상호 작용만을 해당 척도로 사용하였다. 또래놀이 상호작용 척도는 9문항(문항 예: 친구를 돕는다)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래와 놀이 상황에서 친사회적인 특성과 놀이를 순조롭게 이어가는 특성 으로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나타내주는 척도이다.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9이다.

#### 2)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가정의 월평균소득,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 의 학력의 3가지 하위 요인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월평균 소득을 100 만원 미만인 경우 1점,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점,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점,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4점, 600만원 이상 5점으로 점수화하여 사용하였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학력 은 고등학교 졸업이하 1, 대학 졸업 2, 대학원 졸업 이상을 3으로 점수화하여 사용하였다.

#### 3) 가정환경자극

가정환경자극은 가정 내에서 유아가 가정 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자극을 총칭하는 것으로 Caldwell과 Bradley(2003)가 개발한 Home Inventory Administration Manual을 기초로 수정 보완 하여 사용한 자료이다. 가정환경자극은 총 5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습자료, 언어자극, 물

리적 환경, 반응성, 학습자극, 모방 학습, 다양성, 수용성의 하위 8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모든 문항은 ‘아니오(0점)’, ‘예(1점)’로 응답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연구 모형의 간명성을 위하여 기존 선행연구를 토대로 크게 하위 요인을 언어·학습자극, 물리적 환경 자극, 정서적 자극의 3요인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언어·학습자극은 학습자료, 언어자극, 학습자극, 모방 학습을 포함한 개념으로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 부모와의 대화, 행동 모델링, 부모의 학습 도움을 의미하며 문항별 신뢰도 값을 산출한 결과 언어·학습 자극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72로 나타났다. 물리적 환경 자극은 가정 내의 환경 안전, 흥미, 공간적 여유를 의미하며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79로 나타났다. 정서적 자극은 반응성, 다양성, 수용성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적, 언어적으로 반응하며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관계가 되도록 하는 자극을 의미하며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70로 나타났다.

#### 4) 유아의 행동문제

유아의 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오경자와 김영아(2009)의 CBCL 매뉴얼 개정판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척도이다. 행동문제를 평가하는 100개의 문항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유아가 그 행동을 보였는지를 판단하여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0점)’ 부터 ‘자주 그런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3점)’으로 어머니가 평가하도록 한다. 유아의 행동문제를 본 연구에서는 크게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2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소극적이고 위축된 행동, 정서불안, 신체 증상 등 내재화되고 지나치게 통제된 행동을 반영하는 내재화 문제는 총 3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67이다. 주의력 문제, 공격적인 행동 등 통제가 부족한 행동문제를 반영하는 외현화 문제는 총 24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8이다.

### 3. 자료분석

먼저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연구도구의 신뢰도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PASW 18.0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모형의 각각의 측정변인들 간의 다변인정규분포의 가정이 충족됨에 따라 최대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방법을 적용하여 측정모델과 구조모형의 부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기 위해 AMOS 2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검증절차에 따라 측정모델과 구조모델로 나누어 검증하였다. 적합도는  $\chi^2$ 과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참고하여 판단하였다.  $\chi^2$ 의 경우 표본 크기에 민감하며 영가설의 내용이 엄격하여 모형이 쉽게 기각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홍세희(2013)의 설명에 따라 표본 크기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모형의 설명력과 간명성 모두를 고려하는 적합도 지수로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적합도의 기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Hu와 Bentler(1999)의 제시에 따라 TLI와 CFI는 .95 이상, RMSEA의 경우는 .06 이하인 경우를 양호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적합도의 기준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으므로, RMSEA의 경우에는 .10

이하는 보통, .08이하는 괜찮음, .05 이하는 좋은 적합도로 보는 홍세희(2013)의 기준도 참고로 하였다.

### Ⅲ. 결과 및 해석

####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환경자극, 유아의 행동문제, 또래놀이 상호작용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유아의 가정환경자극 하위 요인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하위 요인과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다. 가정환경자극 하위 요인 중 언어·학습 자극은 어머니의 학력( $r = .14, p < .001$ ), 아버지의 학력( $r = .15, p < .001$ ), 가정의 월평균 수입( $r = .13, p < .001$ )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 정서적 자극 또한 어머니의 학력( $r = .15, p < .001$ ), 아버지의 학력( $r = .17, p < .001$ ), 가정의 월평균 수입( $r = .16, p < .0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물리적 환경 자극은 어머니의 학력( $r = .10, p < .001$ ), 아버지의 학력( $r = .11, p < .001$ ), 가정의 월평균 수입( $r = .15, p < .001$ )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학력, 아버지의 학력,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언어·학습 자극과 정서적 자극, 물리적 환경 자극이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아동의 행동문제 중 내면화 문제는 가정의

<표1> 변수 간 상관관계 (N=2,150)

구분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환경자극			유아의 행동문제		또래놀이 상호작용
	어머니의 학력	아버지의 학력	월평균 수입	언어적·학습적	정서적	물리적	내재화	외현화	
1	1.00								
2	.63***	1.00							
3	.31***	.28***	1.00						
4	.14***	.15***	.10***	1.00					
5	.15***	.17***	.11***	.56***	1.00				
6	.13***	.16***	.15***	.26***	.24***	1.00			
7	-.02	-.02	-.10***	-.09***	-.05*	-.01	1.00		
8	-.08**	-.09***	-.11***	-.10***	-.09***	-.02	.70***	1.00	
9	.03	.03	.01	.16***	.14***	.09**	-.08*	-.11***	1.00
M	5.18	5.36	3.63	6.03	6.58	6.58	8.42	7.77	3.11
SD	.94	1.00	.85	.57	.73	1.10	6.42	5.83	.39

\* $p < .05$ , \*\* $p < .01$ ,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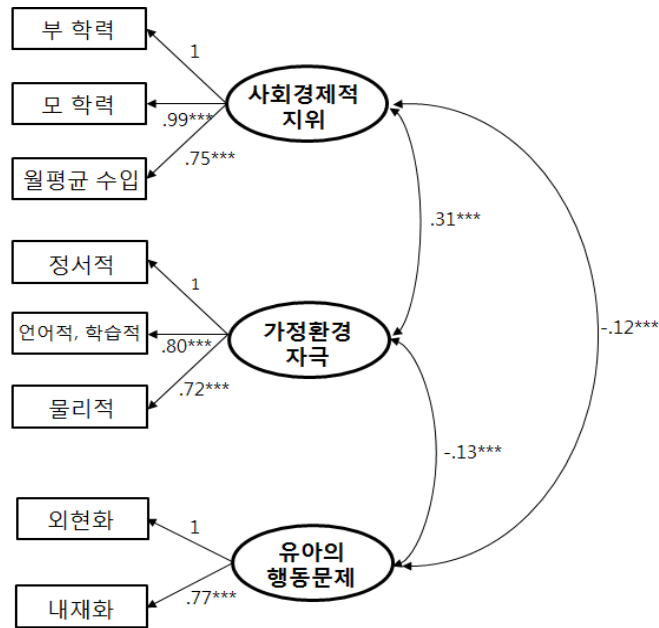
월평균 수입( $r = -.10, p < .001$ ), 언어·학습 자극( $r = -.09, p < .001$ ), 정서 자극( $r = -.05, p < .05$ )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높고 언어·학습자극, 정서자극이 높을수록 아동의 내면화 문제는 낮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외현화 행동문제는 어머니의 학력( $r = -.08, p < .01$ ), 아버지의 학력( $r = -.09, p < .001$ ), 가정의 월평균 수입( $r = -.11, p < .001$ ), 언어·학습 자극( $r = -.10, p < .001$ ), 정서 자극( $r = -.09, p < .001$ )과 유의한 부적상관이, 내면화 행동문제( $r = .70, p < .0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학력, 아버지의 학력,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외현화 행동문제는 적게 나타나며 언어·학습자극, 정서적 자극이 높을 때에도 외현화 행동문제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외현화 행동문제가 높을수록 내면화 행동문제 또한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가정의 언어·학습 자극( $r = .16, p < .001$ ), 정서 자극( $r = .14, p < .001$ ), 물리적 환경 자극 ( $r = .09, p < .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면화 행동문제( $r = -.08, p < .05$ ), 외현화 행동문제( $r = -.11, p < .001$ )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언어·학습자극, 정서자극, 물리적 환경자극이 높을수록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더 활발히 일어나며 내면화 행동문제나 외현화 행동문제는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측정 모형의 부합도 검증 및 모수치 추정 결과

본 연구의 잠재변수로 구성된 세 가지 변인 각각의 관찰변수가 잠재변수의 이론적 개념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타당성을 평가하고, 구조모형의 추정 가능성 확인 절차를 검증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변수의 관찰변수를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통해 구성하였기 때문에 타당성을 확인한 후 연구모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단위부하량 고정법에 따라 잠재변인과 변량값을 1로 고정시켜 모델 추정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문수백, 2009). <표 2>를 통해 살펴보면  $\chi^2$ 값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모형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chi^2$ 값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여 모형과 자료의 불일치가 과도추정되는 문제가 있어 다른 적합도 지수를 통해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RMSEA가 .032, CFI = .986, NFI = .980로 부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어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를 통해 잠재변인들 간 상호상관을 살펴본 결과, 상관계수가 모두 .85 이하로 나타나 잠재변인들 간 변별 타당도를 충족시켰다. 또한 요인 부하량은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유인 부하량이 .50이상 이어야 한다는 문수백(2009)의 기준에 근거하여 살펴본 결과, 대체로 잠재변인에 대한 요인 부하량은 평균 .50이상이 되며 각각의 잠재변인에 대한 수렴타당도를 충족시킨다.

<표 2> 측정 모형의 적합도

Fit indices	$\chi^2$	$p$	$df$	TLI	NFI	CFI	RMSEA
Values	56.548	.000	18	.973	.980	.986	.032



(그림 2) 측정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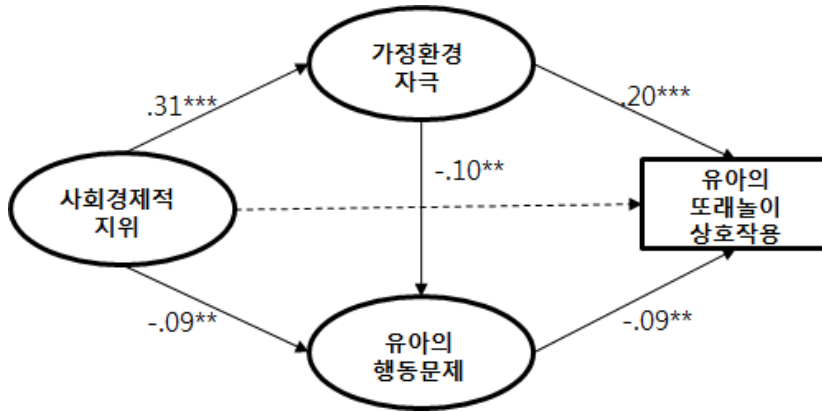
\*\*\*  $p < .001$ .

### 3. 구조 모형의 부합도 검증 및 모수치 추정 결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 모형을 확인한 결과 구조적 인과 관계의 타당도를 나타내어 구조모형의 부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표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부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변인들 간 경로계수를 알아보고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3]과 <표 4>과 같다. 구체적으로, 확정된 구조모형의 경로 중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가정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가정환경자극( $\beta = .31, p < .001$ ), 유아의 행동문제( $\beta = -.09, p < .01$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환경자극이 유아의 행동문제( $\beta = -.10, p < .01$ )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행동문제가 또래놀이 상호작용( $\beta = -.09, p < .01$ )에 미치는 영향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가정환경자극이 높게 나타나며 가정환경자극이 높을수록 유아의 행동문제는 적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행동문제가

<표 3> 구조 모형의 적합도

적합도 지수	$\chi^2$	$p$	$df$	TLI	NFI	CFI	RMSEA
값	57.931	.000	23	.976	.980	.988	.027



[그림 3] 구조 모형

\*\* $p < .01$ , \*\*\* $p < .001$ .

높을수록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적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표 4>),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전체효과( $\beta = .04$ ) 중에서 직접효과( $\beta = -.03$ )뿐 아니라 간접효과( $\beta = -.03$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유아의 또래놀이 행동에 대한 전체효과( $\beta = -.12$ ) 중에서 직접효과( $\beta = -.09$ )뿐 아니라 간접효과( $\beta = .07$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정환경자극은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대한 전체효과( $\beta = .21$ ) 중에서 직접효과( $\beta = .20$ ,  $p < .01$ )뿐 아니라 간접효과( $\beta = .01$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sobel-test를 통하여 검증하였으며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정환경자극을 매개로 유아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가정환경자극이 낮게 나타나고 이것이 유아의 행동문제에 어려움을 나타낼 경향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받은 가정환경자극이 유아의 행동문제를 매개로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난 것을 통해 가정환경자극이 높을 경우 유아의 행동문제가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곧 또래와의 놀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표 4> 변인 간 경로계수

경로	표준화 계수( $\beta$ )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사회경제적지위 → 가정환경 자극	.31	.31	
사회경제적지위 → 유아의 행동문제	-.12	-.09	-.03
사회경제적지위 → 또래놀이 행동	.04	-.03	.07
가정환경 자극 → 유아의 행동문제	-.10	-.10	
가정환경 자극 → 또래놀이 행동	.21	.20	.01
유아의 행동문제 → 또래놀이 행동	-.09	-.09	

〈표 5〉 모형의 효과계수 검증

경로				Z	
사회경제적 지위	→	가정환경 자극	→	유아의 행동문제	-3.00***
가정환경 자극	→	유아의 행동문제	→	또래놀이 행동	2.19**

\*\* $p < .01$ , \*\*\* $p < .001$ .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환경자극, 유아의 행동문제의 구조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소득이나 학력으로 대표되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아의 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직접적인 변인이 아니라는 선행연구(곽금주, 김정미, 유제민, 2007; 장영은, 2015)와 맥락을 같이한다. 즉, 부모의 소득이나 학력과 같이 가정의 자원을 통해 유아의 사회적 관계 및 행동을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다른 변인과 함께 사회경제적 지위를 예측변인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하는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두 변인 간의 관계 사이에 간접 경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경제적 지위는 가정환경자극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가정환경이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Son & Morrison, 2010), 소득이 가정 내 인지적, 물리적 자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하나의 요인임을 밝힌 선행연구(박수진, 김명순, 2010; Guo & Harris, 2000)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족소득이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자원이나 자극과 관련성이 높다는 사실(Davis-Kean, 2005)과도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즉,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유아기 자녀에게 인지적, 언어적 자극을 제공 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적 소재와 경험을 제공하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정환경자극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소득수준이 가정환경에서의 자극 제공 정도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유아의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가정 내 경제적 압박과 긴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원 제공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부모의 정서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유아의 또래와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이들 간의 관계는 연속적인 것을 알 수 있다. Schneider, Richard, Younger 그리고 Freeman(2000)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자극의 종류가 달라지며 이는 유아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김선희(2014)는 이러한 관계를 ‘투자모델’에 근거하여 설명하였다. 즉, 가정의 수입을 자녀에게 물질, 서비스, 경험 등을 제공하게 위한 하나의 자원으로 설명하면서 사회경제

적 지위가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투자 자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정환경자극을 매개로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정환경자극이 유아의 사회화에 자원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맥락을 같이한다.

셋째, 사회경제적 지위는 유아의 행동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유아의 행동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정의 소득수준이나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정에서 제공되는 자극이 다양하거나 풍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유아는 우울, 위축, 공격성, 주의력 문제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 가정에서의 유아의 행동문제가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한 Coplan 등(2004)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사회경제적 지위와 유아의 행동문제에 있어 가정환경의 매개적 역할을 논의한 연구들(김선희, 2014; Conger, Patterson, & Ge, 1995)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행동문제가 사회경제적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다양한 자극을 제공하는 가정환경은 유아의 행동문제를 매개하는 주요 변인으로 작용하는 점이 확인되었다. 가족 소득, 부모의 교육수준과 자녀의 행동문제 사이의 관계에서 가정환경이 매개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도 꾸준히 보고되었으나 이는 주로 유아의 공격성이나 주의력 결핍 행동과 같은 행동문제의 한 가지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Corwyn & Bradely, 2002; Linver, Brooks-Gunn, & Kohen, 2002). 내면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가 관련성이 높으며 유아기 행동문제의 특징은 한 가지로 국한되기보다는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행동문제가 나타나는 매커니즘을 밝히는 데에는 일부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아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가정환경이 중요한 기제로 작용함을 밝힌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아의 행동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환경자극이 유아의 전반적 내면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정환경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행동문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유아의 또래놀이 행동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음이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과 소득은 자녀에게 제공하는 자극의 양과 질에 높은 관심을 이끌게 하며 풍부한 가정환경 자극을 제공받은 유아는 행동문제가 적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가정환경자극은 유아의 행동문제뿐만 아니라 또래와의 긍정적인 놀이 상호작용을 위해 제공되어야 할 주요한 자극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가정환경자극은 물리적 자극뿐만 아니라 유아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언어적 자극, 정서적 자극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유아발달에 적합한 상호작용, 정서적 교류, 놀이 환경이 유아의 행동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필수적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사이에 가정환경자극과 유아의 행동문제가 지닌 매개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의 학력, 소득과 같은 가정의 특성이 자녀에게 제공하는 정서, 정보, 자원 구성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고 이것이 나아가 유아 개인의 문제와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에는 해석에 주의가 따른다. 비판력적 특성으로 언급되어온 사회경제적 지위는 가정 내 대표적 인적자본과 경제자본의 대표적인 요인이다. 하지만 Coleman(1988)은 가정 내 인적자본이나 경제자본이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사회적자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한다. 가정 내 부모 개인이 소유한 자원의 양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관계망이나 지역사회 속에서 가정 내 인적자본, 경제자본 외에 사회자본이 투입되면서 충분히 사회경제적 지위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지위, 소득으로 인해 고정된 사회계층의 지위를 지속적인 관계망과 부모의 지원 및 관심과 같은 사회자본의 투입으로 보다 탄력적인 가정 내 자본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아의 행동문제에도 영향을 미쳐 또래관계에도 영향을 간접적으로 줄 수 있음이 밝혀진 바, 저소득층 가정 유아의 건강성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유아의 행동문제는 이후 청소년기에도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경향이 있고(Kerr, Lunkenheimer, & Olson, 2007) 이는 청소년기 부적응, 품행장애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Campbell, Shaw, & Gilliom, 2000) 보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개별 유아 지원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환경자극, 유아의 행동문제, 또래놀이 상호작용 간의 구조적 관계가 드러난 점을 통해 가정에 대한 지원과 개별 유아에 대한 양방향 지원은 유아의 사회화와 또래관계 적응을 위해 매우 필수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아의 또래놀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가정환경자극과 유아의 행동문제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유아의 사회적 행동을 직접 예측하기 보다는 가정 내 다양한 환경과 유아 개인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와 함께 설명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결론 및 제언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먼저, 본 연구는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관련된 매개변인을 가정환경자극과 유아의 행동문제 외에 다른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다양한 변인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한 자원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나 자원 제공 효과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환경자극, 유아의 행동문제의 구조적 관계를 밝혔으며 기존 연구에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아동의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또한 기존 연구는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을 나타내기 위해 또래관계, 사회적 유능성 외에 공격적 행동, 우울감, 위축 등의 행동문제를 유아의 사회적 관계나 행동발달을 나타내는 지표로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심리적, 행동의 발달을 나타내는 행동문제와 사회성 발달의 대표적 척도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살펴봄으로써 유아 개인과 사회성의 관계를 명확히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가정을 하나의 체계로서 접근함으로써 유아의 개인행동의 발달과 긍정적 사회적 관계의 축진을 위한 가정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유아의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가정의 특성과 환경 자극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가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발달시키기 위해 가정 단위의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필수적임을 제시하는 정책적 제안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곽금주, 김정미, 유제민 (2007). 만3세 아동에 대한 빈곤, 부모변인, 가정환경 및 아동발달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3), 83-98.
- 권유경, 정소희 (2010). 지역사회 SES, 부모양육태도, 아동의 학교적응과 공격성. **사회복지연구**, 41(3), 379-402.
- 김선희 (2014).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환경자극 및 유아의 언어능력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과학연구**, 45(3), 93-114.
- 김수진, 김수영 (2009). 가정환경 변인이 유아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0(5), 87-102.
- 김혜경, 조성연 (2002). 연구논문: 가족형태에 따른 가정환경 (Home)과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 **한국가족복지학**, 7(2), 3-16.
- 노성향 (2015). 가정환경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2(4), 21-35.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박수진, 김명순 (2010).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18~24 개월 영아의 가정문해환경 및 어머니의 상호반응적 교수행동과 영아의 어휘력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1(4), 15-27.
- 오경자, 김영아 (2009). **CBCL 1.5-5 매뉴얼 개정판**. 서울: 휴노컨설팅.
- 이주리, 유안진 (1991). 가정환경과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131-144.
- 이지연, 곽금주 (2008). 아동초기 사회경제적 지위(SES)와 가정환경이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3), 151-165.
- 장영애 (1997). 아동 및 가정의 특성에 따른 취학전 아동 가정의 가정환경자극 분석: 도시와 농촌 가정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 35(4), 15-30.
- 장영은 (201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및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 부모 온정성과 교육적 가정환경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6(6), 1-21.
- 정미라, 권정윤, 박수경 (2011). 영유아 관련 뇌 기반 연구에 대한 고찰. **유아교육연구**, 31(2), 207-231.
- 최혜영, 신혜영 (2008). 아동 또래 놀이행동 척도(PIPPS)의 국내적용을 위한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9(3), 303-318.
- 홍세희 (2013).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초이론과 적용**. 서울: S & M Research Group.
- Baker, C. E., & Iruka, I. U. (2013). Maternal psychological functioning and children's school readiness: The mediating role of home environments for African American childr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8(3), 509-519.
- Boivin, M., & Hymel, S. (1997). Peer experiences and social self-perceptions: a sequential model.

- Developmental Psychology*, 33(1), 135-145.
- Bradley, R. H., & Corwyn, R. F. (2002).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1), 371-399.
- Caldwell, B. M., & Bradley, R. H. (1984). *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Little Rock: University of Arkansas at little Rock.
- Caldwell, B. M., & Bradley, R. H. (2003). *Home inventory administration manual*. AK: University of Arkansas for Medical Sciences.
- Campbell, S. B., Shaw, D. S., & Gilliom, M. (2000). Early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Toddlers and preschoolers at risk for later maladjustmen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03), 467-488.
- Chen, E., Matthews, K. A., & Boyce, W. T. (2002). Socioeconomic differences in children's health: How and why do these relationships change with age?. *Psychological Bulletin*, 128(2), 295-329.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 Conger, R. D., Patterson, G. R., & Ge, X. (1995). It takes two to replicate: A mediational model for the impact of parents' stress on adolescen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1), 80-97.
- Coplan, R. J., Findlay, L. C., & Nelson, L. J. (2004). Characteristics of preschoolers with lower perceived compete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2(4), 399-408.
- Collins, W. A., Maccoby, E. E., Steinberg, L., Hetherington, E. M., & Bornstein, M. H. (2000). Contemporary research on parenting: The case for nature and nurture. *American Psychology*, 44, 218-232.
- Corwyn, R. F., & Bradley, R. H. (2002). Stability of maternal socioemotional investment in young children. *Parenting*, 2(1), 27-46.
- Davis-Kean, P. E. (2005). The influence of parent education and family income on child achievement: The indirect role of parental expectations and the home environ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2), 294-304.
- Dishion, T. J. (1990). The family ecology of boys' peer relations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3), 874-892.
- Brooks-Gunn, J., Duncan, G. J., & Maritato, N. (1997). Poor families, poor outcome: The well-being of children and youth. In G. J. Duncan & J. Brooks-Gunn (Eds.),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pp. 1-17). NY: Russell Sage Foundation.
- Easterbrooks, M. A., & Goldberg, W. A. (1984). Toddler development in the family: Impact of father involvement and parenting characteristics. *Child Development*, 55(3), 740-752.
- Fantuzzo, J., Sutton-Smith, B., Coolahan, K. C., Manz, P. H., Canning, S., & Debnam, D. (1995). Assessment of preschool play interaction behaviors in young low-income children: Penn



- Interactive Peer Play Scal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0(1), 105-120.
- Garvey, C. (1984). *Children's talk*.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ershoff, E. T., Aber, J. L., Raver, C. C., & Lennon, M. C. (2007). Income is not enough: Incorporating material hardship into models of income associations with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5(1), 70-95.
- Guo, G., & Harris, K. M. (2000). The mechanisms mediating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s intellectual development. *Demography*, 37(4), 431-447.
- Hartup, W. W., Cillessen, A. H. N., van IJzendoorn, H. W., & van Lieshout, C. F. M. (1992). Heterogeneity among peer-rejected boys: Subtypes and stabilities. *Child Development*, 63(4), 893-905.
- Hill, N. E., Bush, K. R., & Roosa, M. W. (2003). Parenting and family socialization strategies and children's mental health: Low-Income Mexican-American and Euro-American mothers and children. *Child Development*, 74(1), 189-204.
- Howes, C., Unger, O., & Seidner, L. B. (1989). Social pretend play in toddlers: Parallels with social play and with solitary pretend. *Child Development*, 60(1), 77-84.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Jeffers, W. V., & Lore, K. R. (1979). Let's play at my house: Effect of the home environment on the social behavior of children. *Child Development*, 50(3), 837-841.
- Johnson, C., Ironsmith, M., Snow, C., & Poteat, G. (2000). Peer acceptance and social adjustment in preschool and kindergarten.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27(4), 207-212.
- Katz, L. F., Kramer, L., & Gottman, J. M. (1992). Conflict and emotions in marital, sibling, and peer relationships. In C. U. Shantz & W. W. Hartup (Eds.), *Conflict in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pp. 122-149).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rr, D. C., Lunkenheimer, E. S., & Olson, S. L. (2007). Assessment of child problem behaviors by multiple informants: A longitudinal study from preschool to school entr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8(10), 967-975.
- Larsson, H., Sariaslan, A., Långström, N., D'Onofrio, B., & Lichtenstein, P. (2014). Family income in early childhood and subsequent 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 quasi-experimental stud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5(5), 428-435.
- Linver, M. R., Brooks-Gunn, J., & Kohen, D. E. (2002). Family processes as pathways from income to young children's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8(5), 719-734.
- McCoy, M. G., Frick, P. J., Loney, B. R., & Ellis, M. L. (1999). The potential mediating role of parenting practices in the development of conduct problems in a clinic-referred sample.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8(4), 477-494.

- McLoyd, V. C. (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3(2), 185-204.
- Nelson, D. A., Robinson, C. C., Hart, C. H., Albano, A. D., & Marshall, S. J. (2009). Italian preschoolers' peer-status linkages with sociability and subtypes of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Social Development*, 19(4), 698-720.
- Nelson, L. J., Rubin, K. H., & Fox, N. A. (2005). Social withdrawal, observed peer acceptance, and the development of self-perceptions in children ages 4 to 7 yea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0(2), 185-200.
- Ogbu, J. U. (1992). Adaptation to minority status and impact on school success. *Theory into Practice*, 31(4), 287-295.
- Pettit, G. S., Clawson, M. A., Dodge, K. A., & Bates, J. E. (1996). Stability and change in peer-rejected status: The role of child behavior, parenting, and family ecology. *Merrill-Palmer Quarterly*, 42(2), 267-294.
- Schneider, B. H., Richard, J. F., Younger, A. J., & Freeman, P. (2000). A longitudinal exploration of the continuity of children's social participation and social withdrawal across socioeconomic status levels and social settings. *European Journal Social Psychology*, 30(4), 497-519.
- Son, S. H., & Morrison, F. J. (2010). The nature and impact of changes in home learning environment on development of language and academic skills in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46(5), 1103-1118.
- Tolan, P. H., Dodge, K., & Rutter, M. (2013). Tracking the multiple pathways of parent and family influence on disruptive behavior disorders. In P. H. Tolan & B. L. Leventhal (Eds.), *Disruptive behavior disorders* (pp. 161-191). NY: Springer.

논문투고 : 16.06.07  
수정원고접수 : 16.11.13  
최종게재결정 : 16.12.01